

2008. 2. 19.

수 신 : 제천시의회 의장

제 목 : 농촌정책 우대 및 농자재 가격인하 건의안

위의 건의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
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농촌정책 우대 및 농자재 가격인하 건의안 1부. 끝.

발의자 : 김명섭 의원 (~~서명초본~~ ~~발인~~)
외 5인

농촌정책 우대 및 농자재 가격인하 건의안

의안번호	1231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8. 2. 19.
발 의 자 : 김명섭 의원외 5인

1. 주 문

- 농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용적 기술 및 복지관련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온 농촌진흥청의 기능 강화로 기술농업 발전 유도.
- 농업의 공공적 특성을 살리고 농민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개편안은 철회되어야 함.
-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보급해 온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 건의.
- 농업 경영비용을 낮추고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 비료값 및 영농자재비 인하와 면세유 정책 확대 추진.

2. 제안이유

-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연구기능, 농업기술 보급 및 지도 기능등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여 왔으며,
-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건의와 비료를 포함 한 영농자재비 인하로 농업이라는 산업적 특수성 및 공공 적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농업인과 농촌의 발전을 지원.

농촌정책 우대 및 농자재가격 인하 건의안

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귀하

국민들의 여망 속에 선출된 이명박 당선인과 새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, 모든 국민들은 새로운 경제의 도약과 FTA로 힘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의 바람이 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 16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구상 발표하면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여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습니다.

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기능과 새로운 농업기술을 농업현장에 있는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보급하는 지도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연구·지도기관으로 우리 농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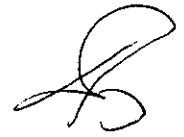
새 정부 출범에 앞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에 대하여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농업이라는 산업적 특수성 및 공공적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농업인과 농촌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여 농촌진흥청을 현행대로 존치해 줄 것과 비료를 포함한 영농자재비를 인하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.

- I. FTA등 급변하는 국제 농업 환경속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질적 농업소득을 향상시켜 농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용적 기술 및 복지관련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온 농촌진흥청은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기술 농업을 이끌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.
- I.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기관으로 민영화하게 되면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연구에 편중되어 시장 가치성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농업의 공공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농민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의 개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개편안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.
- I. 우리 농업인은 그동안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에 있어 항상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우리 농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해 온 국가기관으로 농업 인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보급해 온 가까운 이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정부는 농촌진흥청을 존속시켜 우리 농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여야 합니다.
- I. 최근 3년새 두 배나 오른 비료값과 각종 영농자재, 농업용 유류가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소규모 농가나 고령의 농가는 영농을 거의 포기해야 할 실정입니다. 이에 농업 경영비용을 낮추고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 비료값 및 영농자재비 인하와 면세유 정책을 확대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.

2008년 2 월 19 일

제천시의회 의원 일동

농촌정책 우대 및 농자재 가격인하 건의안
의안발의서명서

의원성명	서명 또는 날인	비고
김영섭		
최수호		
정명중		
강현승		
조태희		
김병룡		